

2026년 7월 몽골 관광시장 동향

'26.7.28(화요일) / 한국관광공사 올란바타르지사

□ 2026년 7월 기준 몽골 관광시장 동향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

- 2026년 7월 현재 몽골 관광시장은 인바운드(방문객 유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웃바운드(해외여행)도 인바운드 성장세보다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성장세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한국·동남아 항공노선 증가가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몽골-중국 항공노선의 대폭 증편에 따라 몽골인의 중국행 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2026년 상반기 중국 노선은 신규 직항노선 개설(상하이)과 기존 노선 증편, 중국 주요 도시(베이징, 상하이, 하이라얼, 다싱 등)와의 항공 연결성 강화로 전년 대비 약 40% 수준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몽골인의 대표적인 단거리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음.
- 이러한 항공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몽골인의 해외 출국은 전년 동기(상반기) 대비 약 10.6%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방문객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전년 대비 약 17만 7,800명이(16.8%↑) 증가하였음. 반면 한국 방문은 약 4.2천 명(5.1%) 증가에 그쳐, 중국 노선 확대가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중국으로 일부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출국자 대부분이 비즈니스 등의 관광 외 목적 출국이지만, 항공편 및 관광상품의 공급증가는 관광객 확대에 연결되고 있음.

□ 인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 수준 성장

- 몽골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기준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75,97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7%(97,354명) 증가한 수치임. 또한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2.4%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성장세는 몽골 관광산업이 안정적인 회복 국면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구 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7.1일 기준)		비 고
	방문 외국인수(명)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2023년	247,387	-	
2024년	328,168	32.7%	
2025년	378,620	15.4%	
2026년	475,974	25.7%	

○ 여름 성수기 효과

-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수기와 몽골 최대 문화관광 행사인 나담축제(Naadam Festival) 전후로 관광객 유입은 더욱 증가했음. 특히 광활한 초원과 고비사막, 흙스콜 호수 등 자연관광과 유목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한 유럽, 한국, 일본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도 국제 홍보 및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 몽골인의 해외여행 수요 지속 증가

- 한편 몽골인의 해외여행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경제 회복과 국제선 공급 확대에 따라 해외여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여행 목적지는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일본 등으로 나타남. 특히 자유여행(FIT)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쇼핑, 의료관광, 가족여행, 웰니스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임.

구분	2024		2025		2026(7.1일 기준)		비고
주요국	출국자수	전년대비	출국자수	전년대비	출국자수	전년상반기 대비	
중국	2,023,334	42.9% ↑	2,274,959	12.4% ↑	1,234,426	16.8% ↑	
러시아	310,182	17.1% ↑	279,357	9.9% ↓	120,701	14.9% ↓	
한국	168,513	15.1% ↑	174,735	3.1% ↑	86,290	5.05% ↑	
일본	47,404	20.9% ↑	56,950	20.1% ↑	29,366	8.9% ↑	
베트남	23,789	52.2% ↑	30,138	26.7% ↑	16,266	24.3% ↓	

○ 항공노선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 접근성 개선

- 항공시장 또한 관광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선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확대와 신규 노선 개설로 해외여행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특히 한국 노선은 항공편 증편과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으로 의료관광과 개별 자유여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음.

○ 한국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관광 수요 증가

- 한국은 여전히 몽골인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의료서비스의 높은 신뢰도와 K-뷰티, 쇼핑, 한류 콘텐츠, 미식 및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산, 인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와 의료기관 할인 프로모션,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이 방한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노선 확대에 따른 중국 지역 관광상품 경쟁력도 강화

- 반면, 2026년 들어 중국 노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중국 여행상품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음. 베이징, 상하이, 후허하오터 등 주요 도시로의 직항편 증가와 저렴한 여행상품 출시로 일부 해외여행 수요가 중국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은 의료·웰니스 관광, 한류 콘텐츠, 안전한 여행환경, 프리미엄 관광상품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현지 주요 언론매체 및 정부 부처 공식 웹사이트 등]

- <https://cmsm.mongolcontent.mn/r/2y10q>
- <https://mocsty.gov.mn/en/news/yzxuMyLjrQh8Z1hW7GpdhPvxzqiPCOvb>
- <https://mto.mn/statistic>
- <https://himongolianews.net/mongolia-first-half-2026-foreign-arrivals-tourism-statistics/>
- https://www.1212.mn/mn/statcate/table-view/Industry,%20service/Tourism/DT_NSO_1800_010V202.px